

세상의 모든 상실과 고통에 대한 애도

임남진 작가 기획초대전, 오는 14일까지 강진아트홀

초기 불화형식 회화·'Still Life' 연작 등 27년 작품세계 망라
시대 관통 굵직한 서사, 인간 본질 등 주제로 한 100여점 선포

억울하게 죽은 낮에 대한 애도와 구원, 동시대 사회의 현실을 기록하는 풍속화, 조각난 풍경과 정물, 그리고 불화의 깊은 색조를 풀어낸 색면 추상. 시대의 굵직한 서사에서부터 자연과 인간의 내밀한 이야기까지. 그림으로 짙은 감동을 안겨주는 임남진 작가의 기획초대전이 마련됐다.



'still life... 적오'

오는 14일까지 강진아트홀에서 열리는 'Still Life 연서戀書_임남진의 위로, 슬픔을 조각내기' 전시다.

이번 전시는 작가의 청년기 작품부터 현재까지 그 깊은 서사를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자리다. 시기별 주요작을 비롯해 최근 물감 중인 'Still Life' 시리즈 등을 소개한다.

한 작가의 작품이지만 1900년대에서부터 2000년대, 현재까지 자연스럽게 변화해온 한국미술의 한 단면을 볼 수 있는 전시이기도 하다.

청년기 작가의 작품세계를 줄곧 상징해 온 것은 불화 감로랑화 형식의 풍속도였다. 그는 광주에서 나고자라 1900년대 민주화운동의 시간을 몸소 겪으며 민중미술, 현실참여미술운동 등에 함께했다. 시대의 굵직한 서사들은 그의 그림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었다.

1998년 처음 불화를 만난 뒤 그린 '감로랑화'는 현실을 기록하는 큰 줄기가 됐다. '떠도는 낮을 위하여'(2000), '장막도'(2014) 등 작품은 민주화운동, 세월호 사건 등으로 억울하게 죽은 낮과 희생당한 수많은 영혼, 살아남은 자들을

위로한다.

이러한 그림들은 이후 작가가 살아가는 현실의 일상을 반영한 풍속도로 이어졌다. 2007년 첫 개인전에서 선보인 '황연', '풍속도', 'Bella L una' 등은 다양한 방식으로 시대와 자아를 투영한 결과물이다.

작가에게 많은 변화를 가져다 준 것은 2018년 'Still Life_BLUE' 전시다. 2014년 광주시립미술관 북경레지던시 이후 줄곧 이어졌던 작품에 대한 고민이 반영된 작품이다. 추상화로 변화되는 징후를 강하게 보여준다. 작가는 불화를 빌어 시대의 서사를 강력하게 이야기하던 것에서 한 걸음 물러나 자신의 내면으로 천착, 더 깊고 넓어진 시선으로 인간과 자연의 근원적 서사에 몰입했다.

'적오(寂寥)', '연서(戀書)' 등 'Still Life' 시리즈는 함축된 세계로, 깊고 넓게 확장된 시선 속 삶의 근원적 서사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달빛이 은은하게 번지고 있는 하늘, 하늘을 분



'떠도는 어린 낮들을 위하여'

할하는 지붕과 벽체, 기둥과 같은 건축적 요소, 종이를 접은 폭지 형상 등이 등장한다. 화면은 더욱 추상화됐고 단순한 색면의 조화를 이룬다.

작가는 "불화 형식을 차용해 주변 삶 속에서 일어나는 군상들을 그리며 인간세계의 부조리한 삶과 인간의 본질을 다뤘다. '그 시절' 눈으로 바라본 세상과 인간, 삶을 묻고, 알고 싶었다"며 "지나갔던 나의 흔적들이 포착된 사물의 현상과 내면에서 꿈틀거리는 '푸른 힘'으로 비취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현화 무안군오승우미술관장은 "그의 회화 세계를 관통하는 것은 타인이 겪는 상실의 고통과 이를 지켜보는 자아 내면의 깊은 슬픔이라 할 수 있다"며 "그의 회화는 슬픔이 슬픔을 향해 통로를 만들면서 형성되는 새로운 관계에 존재한다. 불화세계와 추상적인 색조 사이를 잇는 다리는 세상의 모든 상실의 고통과 슬픔에 대한 위로"라고 평했다. /최명진기자

올해 ACC 월드뮤직페스티벌 예술감독에

원일 예술감독 위촉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ACC재단)은 올해 15회째를 맞이하는 'ACC 월드뮤직페스티벌' 예술감독에 원일 전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 예술감독을 위촉했다.

이번 위촉으로 원 예술감독은 올해부터 2026년까지 3년 동안 ACC 월드뮤직페스티벌을 이끌어간다.

원 예술감독은 한국 전통음악 명인들과 프리제트의 전설적인 연주자들로부터 음악을 사사한 다양한 경력의 멀티 아티스트이자 융복합 공연 전문가다.

또한 국립국악관현악단과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 예술감독, 평창동계올림픽 개·폐막식 음악감독 등을 맡아 과감한 기획과 신선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한국 음악의 혁신을 이끌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원일 예술감독은 "ACC 월드뮤직페스티벌을 동시대의 예술과 음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새롭게 다양하게 구성해 명확한 방향성을 가진 국제적 행사



로 발전시키겠다"며 "이를 통해 광주와 아시아를 대표하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선옥 ACC재단 사장은 "15년째를 맞은 월드뮤직페스티벌이 원일 예술감독과 함께 리뉴얼된 모습으로 관람객들을 만나게 될 것"이라며 "국내 대표 음악 축제로 발돋움해 관객들이 전당 곳곳에서 즐기고 휴식할 수 있는 행사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명진 기자

인공지능 탐구활동 참여동아리 모집

국립광주과학관, 호남권 초·중·고 대상...내달 5일까지

국립광주과학관이 '2024 인공지능 탐구활동 지원사업'에 참여할 동아리를 모집한다.

모집으로 3년차를 맞이한 이번 지원사업은 인공지능 과학문화 확산 및 인재 양성을 위해 마련됐다.

다음달 5일까지 호남권(광주·전남·전북) 초·중·고등학교 동아리를 대상으로 접수를 받는다.

선정된 동아리는 오는 4월부터 10월까지 국립광주과학관 지원을 받아 다양한 인공지능 탐구활동을 수행한다.

▲동아리 탐구활동 물품 구매지원 ▲인공지능 전문가 자문 및 온·오프라인 컨설팅 ▲방학 중 인공지능 연구기관 투어 및 강연 ▲과학관 내 탐구활동

·토론공간 및 3D프린터 등 장비사용 협조 ▲과학관 무료입장(상설전시관·어린이과학관·인공지능관) 등 다양한 혜택이 있다.

오는 10월에는 동아리 활동결과를 바탕으로 과학관 인공지능관에서 성과발표회를 진행한다. 우수 동아리를



지난해 인공지능 동아리 탐구활동 모습

선정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 광주시장상, 국립광주과학관장상을 수여한다. 또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동아리를 선정해 100만원 상당의 추가 활동 물품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국립광주과학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명진 기자

전남문화재단 '구석구석 문화배달' 국비 10억 확보

도내 16개소 대상...매월 문화가 있는 날 행사

전남문화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지역문화진흥원이 주관하는 2024 문화가 있는 날 '구석구석 문화배달' 전국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10억 원을 확보했다고 4일 밝혔다.

사업비는 총 14억3천만원(국비 10억 원, 도 3억 원, 시·군 1억3천만원)으로 오는 4월부터 나주 혁신도시를 비롯한 도내 곳곳에서 매월 문화가 있는 날 행사를 펼친다.

'구석구석 문화배달' 사업은 기존의 소액다건, 유사·중복 성격을 피는 문화가 있는 날 사업을 통합한 문체부의 신규사업이다.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와 주민들의 정주민족도 향상을 목표로 마련됐다.

이번 사업 주제인 '문화요일, '쉼'요일'은 '요일'이라는 시간 개념과 '문화'라는 공간, 생활양식 개념을 결합한 의미로 문화가 있다면 어느 곳, 언제든, 누구나 문화를 즐길 수 있음을 뜻한다.

이와 함께 지역별로 특색있는 문화 프로그램을 펼칠 수 있도록 '전남 문화가 있는 날 협의회'를 구성해 시·군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최명진 기자

광주 친환경
수목장 · 가족장
24시간 연중무휴
8상담문의
062-449-4446